

# Eugene's FICC Update



## 유진투자증권

Fixed Income 김지나\_02)368-6149\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\_02)368-6138\_yhcha@eugenefn.com

### 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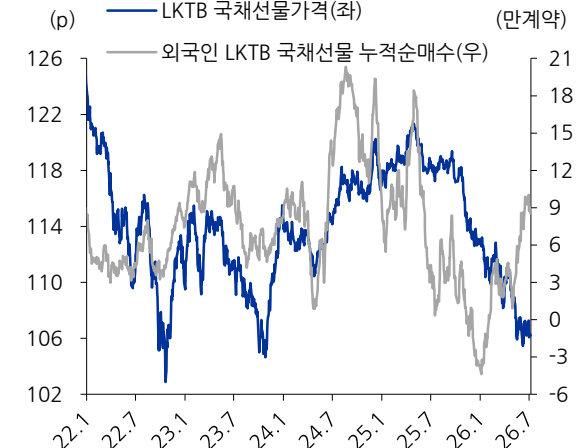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7/7일	1D	1W	YTD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780%	0.4	7.7	82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213%	1.0	12.2	82.8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3.3	42.7	38.8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10	2.0	-19.0	-234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6.20	-9.0	-106.0	-672.0
	미국채 2년물	4.188%	7.6	8.0	71.6
	미국채 10년물	4.552%	8.2	17.5	38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6.4	35.8	26.9	69.6
	독일국채 10년물	2.994%	4.6	13.5	13.9
	호주국채 10년물	4.822%	3.2	10.2	6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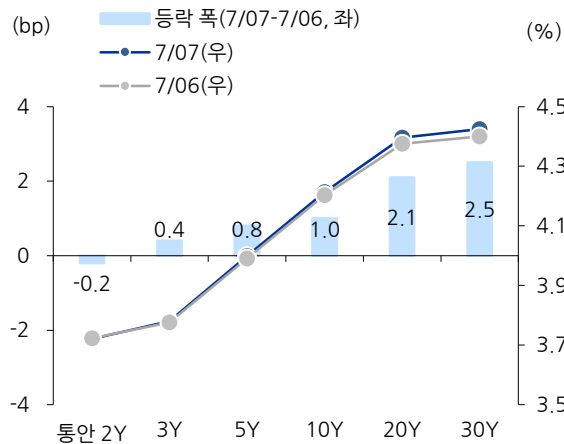
#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.
- 개장 전 발표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관련주 급락.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이어졌으며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.
- 위험회피심리에 금리 장중 한 때 하락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인 및 차주 금통위 경계심 등으로 금리 상승폭 이내 반납하며 상승 마감.

##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30년물 금리 장중 5% 상회.
-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3회 피격됐다고 밝히면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60일간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허용했던 일방면허를 폐지한다고 발표. 이에 국제유가가 빠르게 급등하며 금리 상승 견인.
- 미국 회사 아마존이 3년~40년까지 8개 트런치로 250억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발행 부담 가중되며 금리 추가 상승. 기대인플레이션 수치 역시 상승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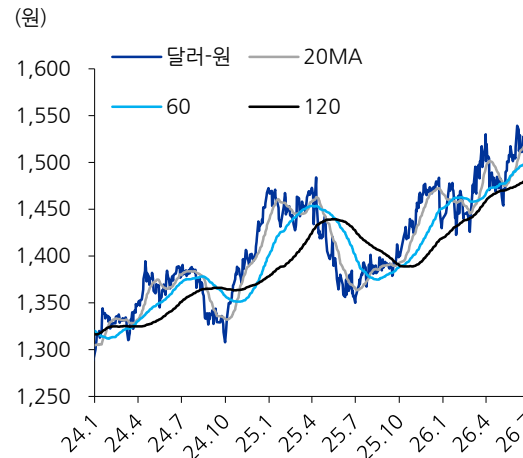


## 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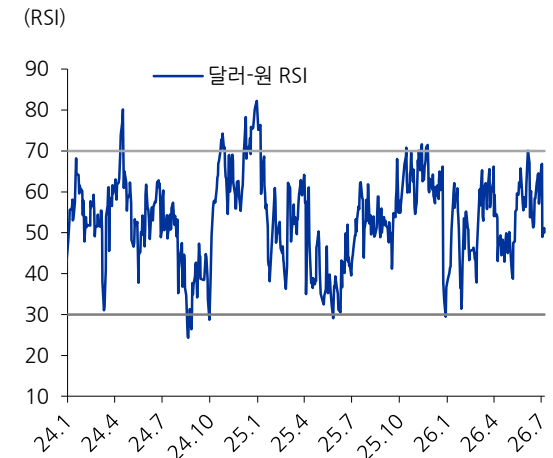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7/7일	1D	1W	YTD	
환율	원/달러	1,528.20	-0.1%	-1.4%	6.2%
	달러지수	101.09	0.2%	-0.1%	2.8%
	달러/유로	1.141	-0.3%	-0.1%	-2.8%
	위안/달러(역외)	6.80	0.1%	0.2%	-2.6%
	엔/달러	162.03	0.0%	-0.3%	3.4%
	달러/파운드	1.336	-0.3%	0.7%	-0.8%
상품	해알/달러	5.15	0.5%	-0.4%	-6.6%
	WTI 근월물(\$)	70.44	2.8%	-0.4%	22.7%
	금 현물(\$)	4,105.96	-1.4%	2.4%	-4.9%
	비트코인(\$)	63,865	0.0%	5.5%	-27.3%

## 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## 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## 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엔화 강세 영향에 -2.10원 하락한 1,528.90원에 서울환시 마감(야간 1,515.80원).
- 다카이치 정부의 BoJ 압박 의견에 대해, 일본 경제재정 담당상은 통화정책을 BoJ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언. 이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달러-원 하방 압력으로 작용.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는 13거래일째(총 -41조원) 이어지며 환율 하단을 지지.
- 달러-원은 야간거래에서 주간종가 대비 -12.40원 하락한 1,515.80원에 마감. 日 미무라 재무관이 한국 외환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발언했고, 韓 당국의 개입 추정 물량 출회되며 환율은 급락.
- 달러-원은 7/2일 1,555.8원(증가) 이후 1,515원대까지 하락했으나, 중동 긴장감 확대되고 달러가 반등하면서 환율 하단은 지지될 가능성.

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되며 상승 마감(DXY +0.2%).
- 간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유조선 3척을 공격,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 임시 허가를 전격 취소하면서 운송 차질 우려 확대. 향후 미-이란 추가 협상 불확실성 또한 높아지며 국제유가(WTI +2.8%)와 달러는 상승.
- 한편 뉴욕연은 6월 소비자기대조사 1년/3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.7%/3.3%로 전월치 3.5%/3.1% 대비 상승. 미 국채금리는 유가 상승과 아마존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상승하며 달러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.
- 달러는 중동 긴장감 높아지며 3거래일만에 반등. 중동 불확실성은 미-이란의 추가협상 완료 전까지 달러 하단 지지할 것.